문화세평 드라마 '아들과 딸'에 나타난 페미니즘 분석

여성해방은 백마타고 온 왕자의 몫?

후남은 또 하나의 신데렐라 콤플렉스 모델
'마마보이' 귀남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

'놓친 기차는 아름답다'고 했던가. 지나간 과거는 분명히 향수를 불러 일으킨다. 고통의 세월도 그렇다. 하지만 고통이 과거의 일로 끝나지 않고 현재까지 지속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다.

우리는 지금 토요일과 일요일 일주일에 이틀동안 한 여자와 고통을 보게 되는데 그 고통은 여성시청자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키면서 일면 "나는 저 정도는 아니었다"는 안도감에 빠져들게 하고 남성 시청자들에게는 무덤덤함과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자족감에 빠져들게 하기에 충분하다. 물론 한 여성에게는 심한 욕설을 마음에 담고.

'아들과 딸'은 표면적으로 여성의 이중성을 이야기 한다. 첫번째, 박해받는 자는 여성이라는 것이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 주체적 인간으로 떳떳하게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주변인이 되어야 하는 상황을 드라마는 보여주고 있다. 두번째는 여성을 괴롭히는 자가 여성으로 그려진다는 것이다. '아들과 딸'에서는 어머니가 그 악역을 자초하지만 그 어머니도 여성일에 분명하다. 두 여인중은 따라서 "여성은 동정받아야 하고 미움받아야 한다"는 틀 속에 갇혀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딸의 고통 뒤에는 남자들이 있고, 그 인물들을 분석하는 것은 여성차별의 한 원인을 살펴 본다는 뜻에서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귀남이는 외아들이다. 사회통념상 외아들에 대한 관념이 그러한 듯 귀남이 또한 '마마 보이'로 자라면서 어머니의 사교반시이 그대로 유전되어 성장하면 드라마에서 그려진다. 이러한 성격때문에 귀남이는 이중적인 자기 보준에 빠지고 만다. 하나는 같은 어머니의 벳속이라는 일정공간을 공유했던 후남이에 대한 천박한 우월감이고 또 하나는 과보호로 인한 나약함이다.

이러한 결과는 그가 후남이를 천시하는 이유에 있어서 그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능함을 감추려는 데서 기인하도록 유도된다. 이기주의적인, 무능한, 우유부단한 인간, 귀남이. 귀남이라는 인물이 확실한 돈줄을 거머쥐거나, 명예를 불러쥐거나, 권력을 잡을 수는 없다. 자본주의라는 사상적, 경제적 바탕의 이 사회에서 그는 이미 조기된 인간에 지나지않는다. 따라서 귀남이도 기해자이면서 또 피해자임에 다름 아니다.

귀남이와 한편에서 일맥상통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귀남이의 아버지이다. 그의 중심적인 입장은 가장이라는 것인데 가장으로서 그는 무능하기 짝이없다. 물론 그가 후남이의 직접적인 가해자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귀남이를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하려는 점과 가해자로서의 어머니로부터 후남이를 만아주는 방패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의 무능함은 유죄일 수 밖에 없다. 딸에 대한 관심을 끊고 아들의 출세로 자신의 과오나 못난꼴을 감추고자하는 그의 태도는 소시민의 무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준다.

이제 이 드라마의 후반부에서 빛을 내고 있는 석호라는 인물을 주목해보자. 석호는 후남이의 진실된 면을 발견한 최초의 남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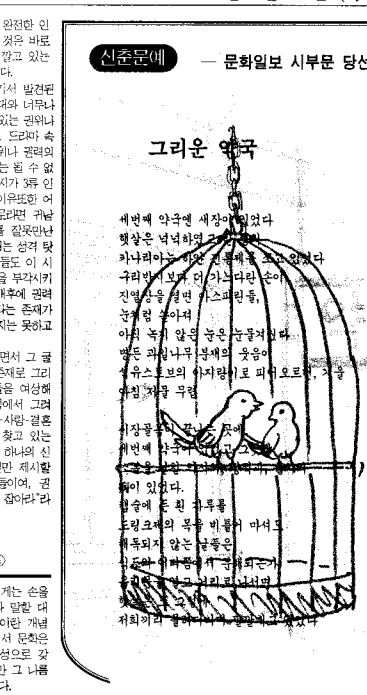
후남이가 여자이기 때문에 받는 교통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결혼이라는 제도적 통과의례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짝짓기에 성공했을때 밝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백설공주를 구한 왕자와 석호는 무엇이 다른가. 신데렐라의 신발을 잦고 신데렐라를 일약 세자비로 불러올린 왕자와, 그리고 변화도의 하정에 시달리는 춘향이의 목에서 칼을 벗겨낸 암행어사 이몽룡과 석호는 과연 무엇이 다른가. 과연 '호남'이 남자인 석호는 백마를 타고 오는 왕자님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석호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관료적인 표상이 되고 있는 법관 지망생으로 일차적인 관문을 넘어선 사람이다. 석호는 인물이 완전한 인격체로 비쳐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입지를 바탕으로 깔고 있는 관료주의가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의 오류는 여기서 발견된다. 석호는 문민정치시대와 너무나 적절히 조화를 살 수 있는 권위나 권력에 도달한 사람이다. 드라마 속에 그려진 어머니는 권위나 권력의 대리인일 뿐 배후조종자는 될 수 없다. 귀남이나 그의 아버지가 3류 인간으로 치부되고 있는 이유또한 어설프다. 작가의 논리대로라면 귀남이와 후남이는 어머니를 잘못인난 탓으로, 아버지는 덤벙대는 성격 탓으로 돌려지고 있다. 그들도 이 시대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부각시키지는 않았다. 또한 그 배후에 권력이라는, 자본주의 경제라는 존재가 심존하고 있음을 자적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을 탄압의 대상이면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하는 존재로 그리면서도 후남이의 문제들을 여성해방이라는 근본적인 관점에서 그려내지 못하고 여성-박해-사랑-결혼이라는 '여성다움'에서 찾고 있는 이 드라마는 이 시대 또 하나의 신데렐라 콤플렉스의 모델만 제시할 뿐이다. "이 땅의 여성들이여, 권력을 가진자를 넘번으로 잡아라"라고 말하면서.

이 성 수
〈본교 동문·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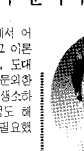
삶 속에 용해된 문학

—〈본교출신 신춘문예 당선자의 문학과 현실 이해〉

문 홍 술〈국문·79〉
조선일보평론부문당선

문학작품을 평가하는 큰을 그 갖조하는 측면에 따라 학적 체계를 중시하는 학문적인 것과 현장 감각을 중시하는 비평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감각이 저널리즘과 결합한 한 형태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신춘문예라는 제도는 아닐런지.

'조구월 론'이라는 미흡한 글을 가지고 이 제도에 턱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한 운이었다. 그렇지만, 당선이 된 후 생각해 보니, 그 준비과정만큼은 상당히 힘들었다는 느낌이 든다. 그 힘들은 신춘문예가 어떤 거창한 관문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것이 지니는 특성에서 비롯된다. 곧, 제도적 글쓰기가 흔히 그러하듯, 그것은 엄정한 규격과 그 속에서의 파격을 동시에 요구하기 마련이다. 더구나 비평분야는 당대 문화적 상황에 대한 비평적 감수성까지 요구한다는 한편과 앞 길이 꽉 막힌 답변처 뿐이었고, 그 순간 열정은 좌절으로 변해버렸다. 그 실감이 서러우실거리다, 이래로 포기할 수 없다는 오기로 덤벼든것이 바로 신춘문예였다. 앞으로 이 빛을 매체로 삼아 지만하지 않고 결손한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다. 출발을 가슴설레임을 동반하기 마련인데, 그것보다는 부려움이 앞서는 것은 왜일까? 아마도, 과연 올바른 비평을 할 수 있을까, 혹은 하문과 비평이 종합된 글쓰기는 가능할까 등의 불안감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어차피 이 두려움은 또 다른 절망을 일탈하고 있는 것이기에 겁없이 그리고 후회없이 그것에 부딪쳐 볼 작정이다.



강 웅 식〈국문·79〉
세계일보평론부문당선

혼히들 문화에는 진실의 표지가 들어 있어야만 한다고 말한다. 그 때는 표지를 진실 그 자체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진실과 관련된 것 혹은 끊임없이 진실을 환기시켜 주는 그 무엇이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문학은 그러한 것을 필요로 하며, 그렇지 않다면 논학이란 아무래도 좋은 가벼운 유희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8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여러 측면에서 당혹스럽기 그지없다. 나의 연상대에서 그것은 너무나 다. 아무튼 이제 우리에게는 손을 들어 가리키며 진실이라 말할 대상도 없고 심지어 진실이란 개념도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 문학은 유희만을 그 본질적 속성으로 갖게 되며 그것을 통해서만 그 나름의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나는 이제까지 인간에겐 진실이란 것이 호흡처럼 필요하다고 믿어왔다. 그리고 문학은 그러한 진실의 탐구를 위한 일종의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고 믿어왔다. 그래서 이렇게 등단까지 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상황 그 자체가 하나의 인격화된 독소로 화하여 나의 등을 두드리며 속삭인다:〈너가 알고 있는 인간의 진실과 문학은 이미 소멸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평론가인 나는 문학의 소멸에 대한 추도사를 써야 할 것인가? 그렇지만 나의 내면의 목소리는 문학은커녀 문학평론이 추도사와 같은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즘의 나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그 같은 물음들이다. 그것들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또 그것은 쉽사리 찾아질 성질의 것도 아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짜라투스트라에 나오는 거미라는 학자의 다음과 같은 말을 되새기면서 앞의 질문의 강도를 증폭시킬 뿐이다. 〈손바닥만한 땅에서도 나는 살 수 있다. 어중간한 박식보다는 차라리 무식이 낫다. 나는 내가 알려고 하는 모든 것에 쉬지않고 가치없고 쓰도하고 냉혹하려 한다. 나는 나의 성실성이 없어지는 때에 나의 눈이 멀기를 바란다.〉

배 정 원〈국문·85〉
문화일보시부문당선

고등학교때부터 내가 보아온 문학들은 어느정도는 다 문제아였다. 하지만 나는 문제아이긴 했어도 문학아는 아니었다. 이것은 어린 나를 절망케했다. 세박식은 방바닥을 파지처럼 뒹굴다가 내 없는 재능을 한탄하기도 하였다. 이 생각은 등단하고 난 지금도 변함이 없다. 심사위원의 취향에 맞은 몇 편의 시가 어떻게 내 재능의 유무를 판정해줄 수 있겠는가. 내가 정말 시인이 될수 있는가는 나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계속 문학속에서 헤매며 살아가고 싶다. 왜냐하면 그 이외에 더 가치있는 일을 나는 모르기 때문이다.

등단을 하고난 후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것은 '덕 좋은시 뭐 써야한다' 는 강박관념이다. 이것을 떨쳐버리기 전에는 시쓰기가 어려울 것 같다. 공자는 「詩三百 一言以蔽之 曰思無邪」라 하였다. 생각의 사악함을 버려야 하는데, '시인'이라는 虛名이 뭐 또 그리 대단한 거라고 자꾸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분명, 삶은 문학보다 위대하다. 문학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겸허하게 인정할 때 위대할 수 있다.

문학은 현실과 꿈의 쫓과 쫓의 끊임없는 대립 긴장의 관계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간다. 따라서 遮斷할 필요도 없지만, 恰氣에만 젖놀리게 된다면 그 문학은 말한 것이다.

문학이 위대하다면 그것은 인간이 상실한 삶의 감각을 되찾아 주기 때문이다. 컴퓨터가 시를 쓰고 작곡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하늘엔 인공달이 뜨고 별 회관한 일들이 다 벌어져도 인간은 인간다움을 위한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 문학이 설 땅은 있을 것이다.

정치가나 목사가 프로야구 선수나 탤런트가 할 수 없는 참된 삶을 위한 가치 창조를 하는 대열의 맨끼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사실이 기쁘기도 하면서도 환절기처럼 불안하기도 하다. 이 병든 세상에 문제 덩어리일 뿐인 문제아가 아니라 그 문제들과 투쟁할 수 있는 제 정신기진 문제아가 되기 위해 애쓰며 내 길을 가야겠다. 내 그림자만 허물처럼 드리워진 이 길에 신의 가호가 함께 하기를…

당선 의미는 절망속 한줄기 빛

진실 추구하는 평론가의 고뇌

상실한 삶을 되찾아주는 문학

독 자 만 평

이병하(미교·88)

외국어교육의 선구자
PAGODA
FOREIGN LANGUAGE SCHOOL
많은 대학인과
직장인들이 파고다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는 이유는
외국어 교육과 우리의 영광된 미래를 위해
별처럼 빛나는 교수진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BEST
ASIC부터 고급에 이르는 미국식 영어회화 · S.L.E코오스 (3개월 12명 정원 / 공식인원 석·박사출신 미국인/12달 완성) 미국생활영어 · Side by Side 기초영어회화 · LADO회화
NGLISH영작, TIME·영어숙해(독해) · TOEFL · 종합영어 · 보통점TOEFL종합반 · GRE · GMAT · 문법 · 영어성립기초 VOCABULARY · AFKN청취 · TOEFL L/C · 무역영어
PEAKING과 LISTENING을 동시에 강훈련하는 日本語 · 프랑스인회화 · NHK 일본어청취 · 러시아어 · 러시아인 회화 프랑스인회화 · 독일어 · 중국어 · 중국인회화 · 스페인어회화
TUTORIAL SYSTEM으로 특수 훈련된 최신어학 교수법 · 외국식 학습분위기 · 최신시설 · 전원냉난방 · 수료증제작, 과학적이고 정밀분석된 Placement Test를 거친 LEVEL배정 · TOEFL없이 입학가능한 WISCOSIN주립대학 PROGRAM개설
자비유학 준비반(1일 6시간)
종로·2가 파고다공원 건너편 흰빌딩 274-4000
다음학기 예약접수중
강남·압구정역 동호대교끝 흰빌딩 515 4020
I CAN DO 파고다 외국어 학원

그 유명한 "광화문 영어학교"
이 나라에서 맨 처음으로 한학급에 열명 안팎의 학생만을 등록시키고 영어 공부를 제대로 시키온 학원에 나가 영어 회화 졸업을 하기로 작정하신 분이라면 외면 할 수 없는 곳.
선생은 모두 자격있는 서양 사람이요 학생은 모두 사귀어 둘만한 여러 계층의 남자와 여자들인 곳.
들어가기 좀 힘들지만, 허겁지겁 서둘지 말고 좀 미리인락하면 순서와 영어 수준에따라 공평하게 입학시켜 주는 곳.
엇속 때문에 학급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 재단의 연구시설으로 한국인에게 영어를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
서울시내의 국민학교 영어 담임교사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 곳.
제128기 수강생모집
● 개 강 : 1993. 3. 4
● 강 사 진 : NATIVE SPEAKER
● 강의시간 : 1일 75분 주 5일
● 반 편 성 : 8~13명의 7단계
● 미국·영국 개별 여학원수 상담
제도법인 언어교육 부설 언어교육 학원
language teaching research center
코리아나호텔뒤 737-4641(대)

軍·행정병 모집
육군 참모총장 위촉처
1. 행정병 주특기 부여
2. 매월 단독입영
3. 6주훈련후 상급부대 배치
4. 고졸이상(17세~26세)
※유사 학원주의
● 사무자동화(OA)병
● 차트(일반행정병)
● 사무타자행정병
관인 인성학원
730-6946~7
(종로 1가 무과수제과2층)
관인 유니사무타자행정학원
735-2323.9716
종로1가(제일은행본점앞)

AN OUTLINE OF ENGLISH SYNTAX
柳 津 教授 著
구문도해
英語構文論
양장미본 ₩8,600
TOEFL·VOCABULARY & TOEIC의 뿌리를 보기 쉬운 SYNTAX
지상강의서
기초·영어구문론
₩5,800
● 아무리 Conversation이 급해도
● 아무리 hearing이 급해도 영어연구의 진보적이며 과학적인 지상강의서 기초구문론으로부터!!!
百萬社 266-8304

프랑스語
'93. 3~4月 학기 수강등록
· 개 강 : 93. 3. 3(水)
(등록접수중)
alliance française
MÉTHODES
Adolescents-Adultes
Nouveau/Différent/Actuel
알리앙스프랑세즈
seoul-centre ☎ 755-4972, 5702 (종구)
nam-seoul ☎ 555-1125, 1126 (강남)
PUSAN:622-3601 KWANGJU:526-0189
TAEGU:255-4630 DAEJON:256-5181
alliance française 韓佛文化財團

삼육외국어학원
S.D.A는 미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등 각국이 자매학원으로 운영되는 외국어 회화의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 각 학원 선착순 모집 ★
◎ 개 강 : 3월 3일
◎ 접 수 : 2월 21일부터 2월 28일(서울)
서울학원 — 영어, 일어, 러시아어
영동학원 — 영어, 러시아어
남영학원 — 영어, 일어
신림학원 — 영어
T. 서울(244-1275), 영동(543-2270)
남영(706-3615), 신림(889-4637)